

# 韓醫學의 展望과 우리의 役割

강 순 수

갑자한의원 원장, 대한한의학방제학회 고문

## Abstract

### A Personal Perspective and Our Role in Korean Oriental Medicine

Kang Shun - Su

Gap Ja Oriental Clinic

The develop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is based upon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 and knowledge gathered over the centuries. The approaches taken are holistic and empirical.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eir actions at molecular levels with more rational, objective and scientific studies.

Today it appears that Chronic and age-associated diseases may be multifactorial and hence more complex. A different approach may be required. One claimed usage of Korean Oriental medicine is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chronic and age-associated illnesses. Some of the botanical formulas used for this purpose were discovered thousands of years ago and continue to be used today.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se formulas may indeed be helpful in the treatment or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This multi-component medicine could not only be very useful meeting the unmet clinical needs but for defining a more synergistic

---

교신저자: 강 순 수

서울시 종로구 원남동 49-18 갑자원한의원 원장

TEL: 02)763-8684

접수일자: 2002. 11. 26      채택일자: 2002. 12. 14

therapy that supports and maintains the bodies natural curative abilities.

The potential usefulness of Korean Oriental medicine embodies the belief of maintaining healthy homeostasis of the body through the proper balance of a mixture of chemical at different organs or tissues.

This concept is different from western medicine and implies that multiple compounds may act on multiple mechanisms of action to maintain the balance of the complex web of biology. This is very important in view of sciences current direction to integrate fragmented information to develop future medicines.

The western and eastern approaches to human health and disease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e best approach in developing future medicines is to integrate both approaches.

Key words : holistic and empirical, age-associated diseases, botanical formulas, homeostasis, complementary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전 중국 (당시는 後漢)의 長沙省 太守張仲景(機)은 해마다 전여명이 만연하여 백성이 이환 사망자가 적지않게 생기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든 차에 그 시대까지 전해 오는 치료처방을 수집하여 전염병을 치료하는 체계를 세우고 그 방법을 기술하여 전했으니 이것이 《傷寒雜病論》이다. 이 저서는 후세에 이 책으로 나누어 지금의 《傷寒論》과 《金匱要略》이 되었다.

그때 이후 이 책은 수많은 의서중에서도 변함없는 동양의학학습의 기본서로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귀중한 서적이 되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처럼 인체의 구조와 기능, 병의 원인과 기전을 몰랐던 당시로서는 병의 진행과 발현하는 증상을 파악하여 그 정보를 근거로 하여 치료방법과 처방을 설정함으로써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고 최대한으로 자연회복 기능을 촉진시켜서 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회복치료를 높였던 것이다. 張仲景이전

까지 수많은 약초에 의한 치료 효과가 전해졌고 거의 비슷한 시대에 작자미상의 《神農本草經》도 출현하였다.

이에 앞서 《黃帝內經》이 나와 인체는 小宇宙로서 우주자연의 이치가 바로 인체가 생존하는 이치로서 그 모든 것을 陰陽五行 上行相克의 원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사상은 면면이 이어져 오늘날까지 한의학 교재내용에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주의인 老莊思想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현시대를 지배하는 인본주의, 실존철학에서 보면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다.

오늘의 서의학은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과학의 기초위에 성장했으므로 抽象的이고 演繹的인 한의학과 마찰이 있을 것은 당연하다. 근세에 와서 서의학의 발달과 함께 한의학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제도적 위치에서 수난을 겪게 되는 이유인 것이다.

20세기 이전까지는 서의학의 임상적 기

여는 그다지 의지할 것이 못되었으며 현미경의 발달로 병원체를 볼 수 있게 되면서 전염병의 예방과 대처에 그 역할이 신장되었고 20세기 이후의 항생제의 개발과 마취술의 발달로 병소제거에 의한 질병극복과 전염병 사망률을 줄임으로 공중보건에 기여도가 높아져 서의학의 위치는 날로 확고해져 갔다.

그러면서도 실제 만성병의 개별적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에 있어서는 서의학보다는 한의학의 치료 효과가 뚜렷하므로 일반인의 선호도는 한의학이 우세해 왔었다. 그러나 과학적 기초위에서 모든 기술을 포용하는 서의학은 날로 발전하여 과거의 난치병들을 날이 갈수록 착착 정복해 가는데 반해 한의학은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이론을 맹목적으로 신봉 답습하므로써 새로운 발전과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일보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이다. 한의학은 그 실천에서 아직도 많은 장점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 서의학의 모순과 미비점들을 한의학의 장점들로 해결해 간다면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의학 발전에 서광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해서는 한의학의 고착적 이론을 과감히 재검토하고 개방하여 그 장점들을 재정비하고 과학적 조명에도 손색없는 이론을 재정립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막중한 한의학인의 책무수행을 위해서는 한의학인 모두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한다.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임상인은 임상인으로서 스스로의 학문과 임상에 불비한 면은 없는가, 보다 나은 해석과 보다 나은 대처는 무엇인가를...

다행한 일은 우리 한의학계의 의력이 우

수하다는 사실이다. 근래에 가진 몇회의 특강에서 얻은 소감은 한의인들은 무엇이든 보다 나은 것을 지향한 학구열이 높다는 것이다. 학문 연구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이는 모습을 보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 교육내용에서도 양방기초과목은 한의학과 무관한 것처럼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일찍부터 과학적 훈련을 쌓아 가야 할 것이다.

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에 의한 창의력 계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는 기필코 해낼 수 있다. 한의학의 자연적수단과 실천은 오늘의 공해와 오염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에서의 약이란 유효물질성분을 추출 정제, 또는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만들어지나 한약은 거의 자연물 그대로를 약으로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에서의 약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한의학에서도 방제학에서는 자연물을 다시 두가지이상 배합함으로써 한가지의 약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약효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한가지만 썼을 경우 있을 수 있는 부작용도 일으키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과는 최소한 2000여년동안 동물 실험이 아닌 인간의 질병을 실제로 치료하면서 전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소중한 方劑的 資料는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하는 일에 조차 지금까지는 관심이 없었다. 손쉬운 臨床活用處方集을 들치면서 病症과 既成處方의 適應證을 맞추는 일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한 일은 藥味의 수가 많을수록 부작용이

적어지고, 효력도 미미해지지만 적용 범위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西醫學에서처럼 病과 藥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 사실이다.

한약에는 많은 장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臨床醫들이 心醉되어 오히려 연구를 소홀히 함으로 학문의 발전이 정체되는 것인 지도 모른다.

놀랍게 발전해가고 있는 西醫學도 아직 의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을 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 생명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세분화하고 분석해 보려는 노력은 많은 사실들을 규명하는데 一翼을 기여한 반면, 생명의 원점에서 멀어져 가는 一端이 있음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西醫學者들도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人爲的 技術의 발달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자연의 생태에 대한 폐단도 늘어 간다는 사실은 오늘날 전 인류에 대두된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오늘의 과학은 뒤를 돌이켜 지나온 歷程을 省察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미래의 방향이 바로잡혀 있는가를 확인하고 韃도보장을 가하여 올바른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西醫學이 해결하지 못한 질환 중에서도 인류의 고통으로 남아있는 병에는 免疫機能의 장애로 생기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한의학인으로 바라다 보면 인체는 생명이 制御하고 있는 機體로서, 免疫機能도 생명의 制御機能의 일면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훨씬 다른 차원에서 연구되어질 수 있을 것으로 느껴진다.

세분된 일면에 적용되는 단일성분의 치료약을 모색하는 西醫學과 하나의 統合된

機體에 적용되는 복합성분의 식물을 다시 배합하여 치료약으로 활용하는 한의학의 方劑學은 대조적이면서 무엇인가 未來에의 가능성을 느끼게 한다.

이들 관점의 兩面에서 연구되어진다면 더 빠른 장래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눈부시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그 기전을 규명한다고 해도 꽤 오랜 세월의 연구노력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지식의 한계 밖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며 꾸준히 창의력을 발휘해서 과학화해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학이란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과학이라면 곧바로 복잡한 기계를 연상하는 것이다. 원래 과학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객관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진리나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 이루는 체계적 지식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모두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문제점은 방제학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한의학인들이 알고 있는 방제학은 옛사람들이 전해준 처방이 어떤 증에 쓰는가를 배우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가지 약재의 효력이 다른 약재와 배합되면 어떻게 다른 작용을 하게 되느냐에 대한 지금까지 전해오는 문헌을 통해서 발굴하고 이것들을 차례로 실험하고 확인하여 객관화하며 과학적 체계화를 해 나가고, 다시 새로운 창조적 시도를 통하여 미래의학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